

BTN, '상월결사' 2주년 특집 내일 방송

윤호섭 기자

승인 2021.11.09 07:30

댓글 0



[앵커]

오는 11일 상월선원 천막결사 입재 2주년을 앞두고 BTN불교TV가 특집 다큐멘터리를 준비했습니다. 상월결사를 이끄는 자승스님의 총무원장 취임부터 지난 2년간의 구도여정을 담았습니다. 윤호섭 기자가 소개합니다.

[리포트]

21세기 한국불교의 전도선언이라 평가받는 상월선원 정진결사.

조계종 총무원장을 두 차례 역임하고, 백담사 무문관 수행을 거쳐 저잣거리에 나온 자승스님은 침체된 한국불교를 되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현대판 결사를 택했습니다.

허허벌판에 천막을 지어 풍찬노숙하며 겨우내 참선을 하고, 밖으로 나와 사부대중과 똑같이 길을 걸으며 불교중흥의 원력을 다진 지 어느덧 2년.

한국불교 중흥결사, 대한민국 화합결사, 온 세상 평화결사를 기치로 세운 상월결사 2주년을 맞아 BTN불교TV가 특집 다큐멘터리 '다시 불교'를 선보입니다.

'다시 불교'는 2009년 조계종 제33대 총무원장으로 취임해 8년간 중단 행정수반으로서 소임을 살고, 이후 상월결사를 이끈 자승스님의 10여 년을 주요 사안별로 짚어봅니다.

전체뉴스



2021년 11월 18일 전체뉴스

2021년 11월 17일 전체뉴스

2021년 11월 16일 전체뉴스

2021년 11월 15일 전체뉴스

2021년 11월 13일 전체뉴스

인기뉴스



'천진암 역사 바로잡기' 본격화.. 대불청 TF 구성



삼성이 모자 해인사·통도사 참배.. '디지털 반야심경' 선물



해담스님, 높이 5.5m '오백나한도' 첫 공개



조계종 최고 법계 대종사 66명·명사 16명 품수



범어사 수좌 인각 대종사 원적..15일 영결식



서울 도봉사, 코로나 의료진 격려



불자 교수들, 팬데믹 후 한국 불교 발전 모색

총무원장 취임 당시부터 사회적 약자를 보듬어 불교의 대사회적 역할을 확대한 사례를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에게 다양한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도법스님 / 전 조계종 화쟁위원장(특집 다큐멘터리 '다시 불교' 중)

(어떤 제안을 거부하거나 못하겠다고 하거나 이런 경우가 한 번도 없었어요. 제안하면 "알았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 기본적으로 이런 입장이었죠. 그런 부분은 대단히 높이 평가해야 할 부분이라고 봐요.)

상월선원에서 석 달간 계속된 정진을 통해 자승스님은 한국불교 중흥의 열쇠를 결사의 가치에서 찾았습니다.

그 누구의 제안도 없었고 개인적인 성취를 위한 것도 아닌 결정.

그렇게 자승스님은 사부대중과 길 위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며, 한 번은 동화사에서 봉은사까지, 또 한 번은 송광사에서 통도사까지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저 멈춰버린 것이 아닌 살아있는 불교로서, 불제자들이 직접 다시 한 번 중흥의 기회를 만들자는 취지였습니다.

자승스님 / 상월선원 회주(특집 다큐멘터리 '다시 불교' 중)

(많은 불자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불교적 성향을 갖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이런 확실한 생각을 갖고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종단발전과 불교중흥을 염원하며 때론 행정수반으로, 또 수행자로서 보낸 10여 년의 여정.

상월결사 2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다시 불교'는 내일 저녁 8시 30분에 방송되며, 11일 밤 10시 30분과 13일 오후 2시에 각각 재방송됩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윤호섭 기자 btnnews@btn.co.kr

BTN 뉴스

<저작권자 © BTN불교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

좋아요 0개

윤호섭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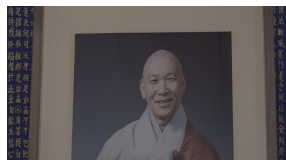
인기가사

범어사 수좌 인각 대종사 원적..15일 영결식

금정총림 범어사 수좌 인각 대종사 분향소

10년간 '무문관' 곁에 두고 삶의 지혜 구해..이철수 판화

'남자의 표상' 인각 대종사 영결·다비식 엄수



대중 눈높이 수행법 제시 '전법사' 광덕스님 재조명

범어사 주좌 인각 대중사 힘

기사 댓글 0개

전체보기

기사의견을 등록해주세요.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합니다

0/300

✓ 등록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BTN소개 | 찾아오시는 길 | 사업안내(광고/제휴문의) | 이용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독자투고 | 청소년보호정책 | 이메일무단수집거부

불교텔레비전(주) | 제 호 : BTN불교티비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65 | 등록번호 : 서울 아 00484
등록일 : 2007년 12월 27일 | 발행인 : 구본일 | 편집인 : 남동우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호성 | 전화번호 : 02-3270-3385
BTN불교TV 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복사, 전재, 배포 등을 금합니다.(콘텐츠 문의 : 02-3270-3385)
Copyright © 2021 불교텔레비전(주)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POWERED BY 